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학교 성평등 교육, 지금 여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우리만치 급격한 변화의 순간들을 맞아 왔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 시대에서의 여성인권과 젠더의식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면, 교원 및 예비 교원에 의한 학내 성희롱 사건과 불법촬영 사건들, 텔레그램 N번방을 위시하여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성폭력 사건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격하게 확산되는 반페미니즘의 기류는 한두 해 전만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사회의 성평등 가치를 왜곡·축소하고, 결과적으로 퇴행시키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적 현실의 영향을 가장 오래도록 받게 될 세대는 지금의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

들이다. 현재 학교에서 전수하는 성평등 의식이나 인권적 가치들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학교교육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혐오적 태도와 문화를 먼저 흡수하고, 이를 자신들이 집단적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은 학교 성평등 교육의 이유와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적어도 자라나는 세대에 성평등한 가치와 신념, 서로 다른 성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의 추진실태와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학교 성평등 교육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필자는 지난 2018년에 초·중·

1) 본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연구과제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현실과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성과들을 추가 조사 및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성평등 교육에 대한 글을 본지에 기고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학교 성평등 교육은 정책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스쿨미투 이전까지 양성평등 교육은 이미 교육정책 내에서 ‘지나간 이슈’이자, ‘매장된 이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묻혀진 이슈가 다시금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2018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2018년 스쿨미투 이후 다시 시작된 학교 성평등 교육의 현실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되짚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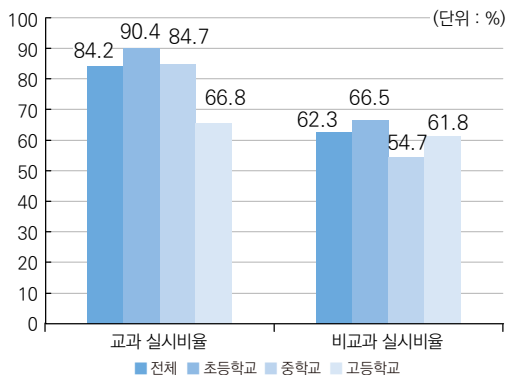
2.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 학교 성평등 교육 추진 실태

2.1. 학교 성평등 교육의 방식과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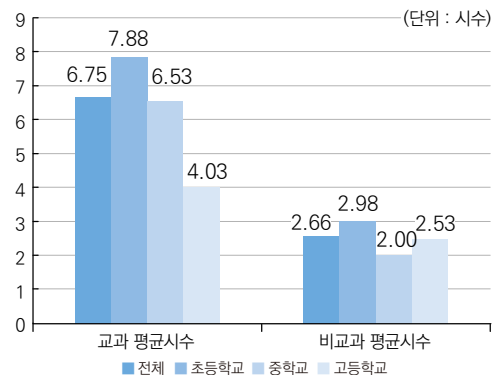
초중고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추진 상황의 차이가 크다. 전체 초중고 모집단의 약 20%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실태를 확인한 최윤정 외(2019b)에 따르면, 단 1시간이

라도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학교의 비율은 교과교육 84.2%, 비교과교육 62.3%이다. 교과교육의 경우 별도의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기보다는 대부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초·중·고별 공통과목에서 최소 시수 이상에서 성평등 관련 내용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84.2%의 비율은 개정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교과교육 추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 90.4%, 중학교 84.7%, 고등학교 66.8%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성평등 교육 실시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에서만 차등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연간 교육시수 또한 학교급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7.88시간, 중학교 6.53시간, 고등학교 4.03시간으로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교과교육과 달리 비교과교육에서는 초등학교(66.5%, 2.98시간)나 고등학교(61.8%, 2.53시간)에 비해 중학교(54.7%, 2.00시간)에서의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시수 또한 적지만, 사실상 학교급별 격차는 크지



〈그림 1〉 학교 성평등교육 실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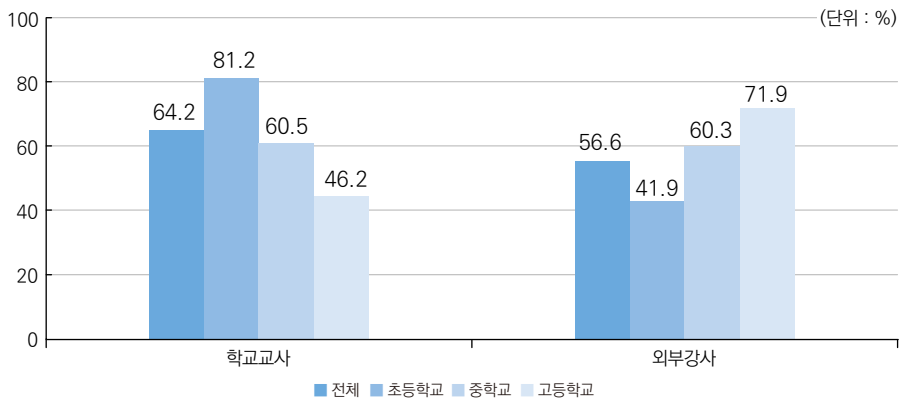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성평등교육 연간 평균 시수

출처: 최윤정 외, 『학교 양성평등 지표를 활용한 교육환경 진단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p.96; 103; 107; 114.

않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학교급을 통틀어 초등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는 비교과보다는 교과교육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고등학교는 교과와 비교과 모두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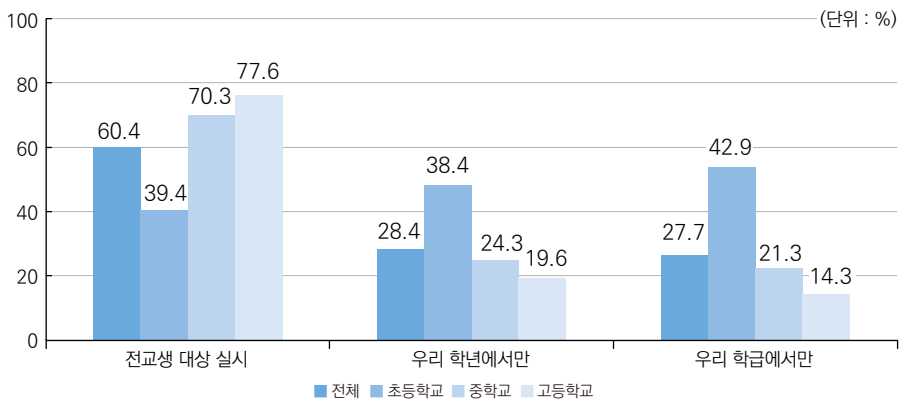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누가 교육할 것인가’는 교육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의 교수자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최윤정 외,

2019a) 이 또한 학교급별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교사를 통한 교육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81.2%인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60.5%, 46.2%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외부강사의 비율은 교사의 반대급부로 작용하는데,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1.9%에 불과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60.3%, 71.9%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사를 통한 교육 비중은 줄어들고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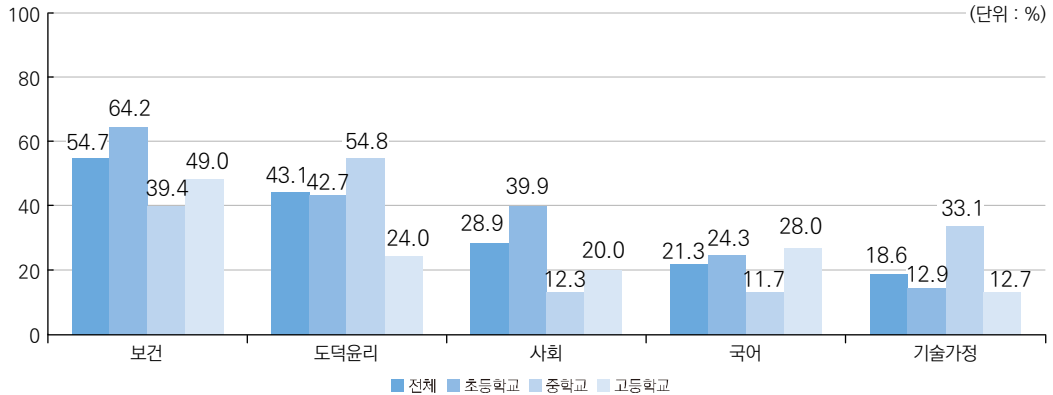
출처: 최윤정 외,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p. 143.

〈그림 3〉 학교 성평등교육 교수자 중 교사, 강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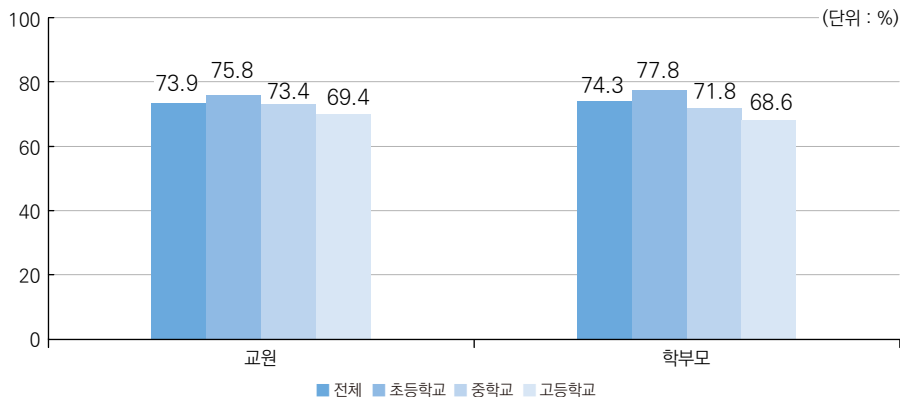
출처: 최윤정 외,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p. 145.

〈그림 4〉 학교 성평등교육 실시 방식



출처: 최윤정 외,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p. 141.

〈그림 5〉 학교 성평등교육이 실시되는 교과



주: 학부모 대상 교육에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도 포함됨.

출처: 최윤정 외, 『학교 양성평등 지표를 활용한 교육환경 진단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p.129; 131; 138; 140.

〈그림 6〉 교원/학부모 대상 성평등교육 실시 비율

학교급별 경향성의 차이는 교육 대상자의 단위와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단위로 실시되는 비율이 42.9%이나, 같은 방식이 중학교에서는 21.3%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고등학교에서는 14.3%로 초등학교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반면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39.4%이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70.3%, 77.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단위 개별 교육을 지향하는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강당이나 방송을 이용한 대규모 집합교육의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교육으로 실시된 경우, 성평등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과는 주로 보건(54.7%), 도덕/윤리(43.1%), 사회(28.9%), 국어(21.3%), 기술·가정(18.6%) 순이며, 주로 성교육을 다루는 교과나 사회과계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64.25)와 사회과(39.9%)의 비율이 다른 학교급 보다 높고, 중학교에서는 도덕/윤리(54.8%)와 기술·가정(33.1%)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두드러지는 교과는 없다.

성평등 교육의 대상은 비단 학생만이 아니다. 교과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지식과 가치 형성에 유의미한 타자가 되는 존재들로 이들의 성평등의식과 지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성별 고정관념은 자라나는 세대에서도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교원 대상 성평등 교육의 비율은 73.9%이며, 역시 초등학교(75.8%)에서 가장 높다(중학교 73.45%, 고등학교 69.4%). 학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여 74.3%로 집계되고, 이 또한 초등학교(77.8%), 중학교(71.8%), 고등학교(68.6%) 순으로 더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2. 학교 성평등 교육의 내용 구조:

2015 교육과정 분석

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비교과교육의 경우 학교나 강사가 임의로 강의 주제와 내용을 선택, 구성하게 되므로 대략의 내용 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교과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의 구성틀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성평등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위 5개 교과(국어, 사회, 도덕/윤리, 실과/기술·가정, 보건)로만 한정할 때, 성평등 관련 내용요소가 있는 경우는 총 33개로 확인된다(최윤정 외, 2019a, pp.

197~198). 사회과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에서 1개(역사), 중학교에서는 2개(모두 역사), 고등학교에서는 공통교과에서 2개(통합사회, 한국사), 선택교과에서 2개(사회문화, 동아시아사)로 모두 7개이다. 도덕과는 3건에 불과한데, 이 중 중학교가 2개(도덕), 고등학교가 1개(생활윤리)이다. 실과(기술·가정)와 보건의 그나마도 성평등 관련 내용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과로 실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7개로 총 11개이며, 보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6개, 고등학교에서는 6개로 총 12개이다. 그리고 국어과의 경우에는 성평등 관련 성취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과별 특징에 따라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공통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 가장 교과별 공통성이 많은 주제는 성윤리와 성건강으로 이러한 경향은 도덕과와 실과, 보건교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로 도덕과는 성윤리를 중심으로, 보건교과는 성건강을 중심으로, 실과(기술·가정)는 이 둘의 내용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성윤리는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 젠더폭력 등을 성을 둘러싼 가치적 측면이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념들을 다룬다. 성건강은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성적 발달, 임신·출산·피임 및 질병 등 주로 성교육적인 요소들을 반영한다. 두 주제 모두 사랑과 성, 성적 가치관, 가족관계 등과 같은 연계 내용요소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둘 다 성별 불평등(gender inequality) 보다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기반한 개념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한편 사회과의 경우에는 여성을 성평등 관련 내용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명시하여, 과거부터 현재까

〈표 1〉 교과 교육과정 내 성평등 관련 내용요소 범주화

교과	핵심 주제		내용 요소
사회과	여성	과거	여성 인권, 여성 참정권, 여성 운동·페미니즘, 여성 사회진출·승진, 여성 교육
		현재	인권, 성불평등·차별, 성역할, 성문화, 성의식
도덕과	성윤리		사랑과 성, 성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 성문제(성폭력, 성매매), (양)성평등, 가족관계
실과 (기술·가정)			
보건	성건강		생애 주기별 성적 발달, 임신·출산·피임, 성 매개 감염병

출처: 최윤정 외,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p. 221.

지 이어지는 여성 인권 및 정치·경제·사회·교육적 권리 및 참여의 확장을 성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상당수의 내용이 여성의 인권 신장, 참정권의 획득 등 사회적으로 여성 권익이 인정받는 과정 등에 집중한다. 역사적 사실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 불평등 이슈를 간과하고 있어 마치 성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듯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만하다. 실제 학생들 또한 학교 성평등 교육에서는 대해 현재의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어 주길 바라는 요구가 높아 과거의 이슈만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 또한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최윤정 외, 2019a, p. 164).

한편 국어과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요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국어과의 성취기준이 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 관련한 기술 능력이나, 문법·문학 등의 고전지식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랑스나 스웨덴에서는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을 학습함에 있어 평등/불평등, 성정형화 관련한 인물과 상황을 분석하거나, 관련한 글쓰기나 토론 등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외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최윤정 외, 2018b), 교육과정에서 일말의 언급도 없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3.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최근 학교 성평등 교육 정책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18년 스쿨미투 이후 교육부와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다양한 조치와 예방정책을 시도하였고, 학교구성원의 성평등의식 제고는 가장 기본적인고도 근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 역시 강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스쿨미투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성평등 교육 정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본다.

3.1. 법 개정 및 발의, 조례 제정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현행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가장 큰 한계점 중의 하나는 젠더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화된 근거법에 의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의해, 성교육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와 학교보건법 제9조에 의해,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의해, 성교육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와 「학교보건법」 제9조에 의해, 폭력에 방교육은 4대폭력예방법¹⁾ 각각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경우, 양성평등 교육과 폭력예방교육²⁾은 양성평등 교육정책관에서, 성교육은 학생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그 분담체계가 자율적이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절적 추진 구조는 적어도 학교교육에서만은 성평등 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윤정 외, 2019a).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단순히 양성평등의식의 인권적 명분을 천명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성교육·성인지교육·폭력예방교육이 포괄적·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학교교육 내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제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교육기본법」 개정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 증진(제17조의2)’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제17조의4)’가 별도의 조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를 하나의 조항(제17조의2)으로 통합하면서 양성평등 교육의 범위를 성교육·성인지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교육부의 양성평등 교육 자문기구인 ‘남녀평등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 교육심의회’로 수정한 내용도 동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후 9월 24일자로 개정안이 공포된 상황이다. 그 외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성평등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포괄하고, 동일한 정책영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이 현재 발의, 현재 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러한 변화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각 지자체들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³⁾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20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충북교육청('20년 5월), 부산시교육청('20년 7월), 세종시교육청('20년 7월), 전북교육청('20년 12월), 전남교육청('21년 2월)까지 전체 교육청 중 약 3분의 1에서 성평등교육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태이다.⁴⁾ 이들 조례로 인해 해당 교육청들은 매년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교육청 내 (양)성평등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3.2. 시스템의 개선: 전담기구 조직

교육부 내 전담조직 신설은 스쿨미투로 인해 변화된 학교 성평등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투운동 이후 정부가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함에 따라 교육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본고에서 의미하는 폭력예방교육은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미한다.

3) 교육청별로 ‘성평등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서울, 충북),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부산, 세종, 전북, 전남).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에도 동일 조직이 설치되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업무 분야는 크게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 양성평등 교육 추진이며, 그 밖에도 교육정책에서의 성인지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로 그동안 부처 내에 흩어졌던 성평등 관련 정책들이 하나의 콘트를 타위를 갖게 되고, 연계성 있게 추진될 기반을 마련한 점은 동 담당관 설치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로 인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앙부처의 조직변화가 시·도교육청의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나 전담자 지정으로도 이어졌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미투 이전에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외 교육청에서는 성평등 관련 조직을 별도로 구성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18년 스쿨미투와 '19년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후 각 교육청에서 성평등전담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21년 9월 기준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⁵⁾에서 '성인지' 또는 '성인식 개선' 등의 명칭으로 성평등 교육 전담조직(대부분 팀 수준)을 설치하고 있다.

3.3. 매뉴얼 및 교수자료 개발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현장에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은 매뉴얼이나 교수자료의 개발과 같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들이다. 교사들의 성평등의식 제고와 함께,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을 '19년에 배포한 이래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및 수정하여 '20년에 개정된 매뉴얼을 다시 배포한 바 있다(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도 「초등생들의 성차별적 언행 지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학내 발생하기 쉬운 혐오표현을 다루는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다(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초등성평등연구회, 2018).

교수자료의 개발도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은 사안으로 조금씩 개발 자료를 더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젠더온 사이트⁶⁾이다. 젠더온에서는 주제별·대상별·유형별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등 영유아 및 학교교육 콘텐츠가 최근 몇 년간 대폭 강화되었다. 모든 자료들이 초등(저학년/고학년)·중등·고등별로 구분되어 각 학교급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자료들의 경우·국어·사회·음악·체육 등 특정 교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존에 수업용 교수자료만을 개발하던 범주를 확장하여 교사교육을 위한 교사용 자료도 꾸준히 개발하는 점 또한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점이다. 교육부에서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인 권교육 교수학습자료 「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를 개발하면서 일부로서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바 있으며(교육부·전남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8),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5) 해당 교육청은 서울(성평등팀), 부산(성인식개선반), 인천(성인지교육팀), 광주(성인식개선팀), 대전(양성평등 교육팀), 세종(양성평등 교육지원센터), 경기(학교성인권담당), 충북(성인식개선팀), 충남(성인지교육지원센터), 전남(성인지생활교육팀), 경남(성인식개선팀)이다(출처: 각 교육청 홈페이지, 2021년 9월 기준).

6) 젠더온, <https://genderon.kigepe.or.kr>, 검색일자: 2021. 9. 6.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과정연계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한 바 있다(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일부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 바 있다.

3.4. 교사교육: 현장지원단

교원대상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 중의 하나로 보인다. 학교 성평등교육의 실행력은 일차적으로는 교사들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00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각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양성평등교육은 2010년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8년에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만이 근근이 남아있고, 양성평등교육은 전체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단 1개 과정만 존재하였다(최윤정, 2018a). 성평등교육 연수과정을 개별 교육청에만 맡기고, 사실상 교육정책의 기조로서 다루지 못한 탓이다. 이러한 와중에 2019년부터 교육부가 학교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정도의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 진다. 직무연수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화연수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해당 사업은 참여한 교원들의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의 현장지원단 사업에 이어 개별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현장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경기도나 경상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를 모집하여 현장지원단을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현장지원단이 전국 기준 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자체 현장지원단을 양성하게 된다면,

중앙과 지역 간 전체적인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많은 인력을 양성, 확산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4. 학교 성평등교육, 앞으로 우리

스쿨미투 이후 지난 2~3년간 학교 성평등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조금씩 보태지고 있지만, 제도나 정책, 또는 관련 연구물이 쌓인다고, 현상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 역량은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 형성될 수 없고, 자각을 거쳐 문화를 바꾸어 내기까지는 보다 지난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충실한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평등교육에 대한 일관된 기조 속에 추가적인 노력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가장 급한 것은 교육내용의 관점과 소재를 풍부하게 하고, 교육과정에서의 접근방식을 혁신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관련 내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제한적이다.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므로 새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성평등교육 접목지점을 넓히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미 젠더온 및 각 교육청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나, 해외 성평등교육 사례들이 발굴되었으므로 이를 활용 및 접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성평등교육의 성취기준과 큰 틀에서의 교육과정을 먼저 설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년별, 영역별로 학교 성평등교육의 성취기준이 제시된다면 각 교과별 학습내용을 선정, 접목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 전반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1999년 교육부가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를 개발한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어. 20여년 간 변화된 학교현장을 반영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원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실상 학교 성평등교육의 성패는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달려있고, 이 마지막 과정을 책임지는 자들은 결국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은 선언적 의미의 의식교육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은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교육적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과 교과교육에서의 집목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과 방법들이다.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와 학교운영에 대한 역량을, 개별 교사들에게는 교과교육에서의 성평등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고, 교원 간 공부모임이나, 소통기회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추진체계의 개편은 학교 성평등교육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현재 학교 성평등교육의 적지 않은 비중이 성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부 직제상 성교육은 양성평등정책담당의 소관이 아니다. 성교육의 내용과 추진체계가 여타 성평등교육 및 정책들과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양성평등교육’의 범주를 확장하였으나, 실제 추진체계에서의 유기적인 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 추진체계 상에서의 유기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겠다. 관련하여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심의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업이

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외에도 성평등한 의식과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내에서의 정책들을 검토, 제안하고, 이들을 성평등 기치 아래 모을 수 있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심의기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다.

스쿨미투 이후 우리 교육에서 성평등교육이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한결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눈에 보디는 몇 개의 작은 정책만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그들의 문화를 개선하기란 불가능하다. 의식과 태도는 오랫동안 다양한 생각의 자극 속에서 관점을 키울 때 변화 가능한 것이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성장단계별 인지능력과 사회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평등 이슈를 제기하는 것조차 따돌림과 비난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어 학생들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젠더 문제들을 공론화 하는데 주저한다. 그러나 환경의 부침이 심할수록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성평등한 역량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교육적 노력은 지속되어야겠다.

• 참고문헌 •

- 교육부·전남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 :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서울시교육청(2020). 중등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중학교, 고등학교
최윤정(2018a). 초중등 페미니즘 교육의 추진 여건 및 정책 방향의 고찰. 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별쇄본
(2018.6.16.).
최윤정·문희영·김은경·송현주·채혜원·홍희정(2018b). 해외 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장윤선·장희영·최윤진(2019a).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박성정·김효경(2019b). 학교 양성평등 지표를 활용한 교육환경 진단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간 예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초등성평등연구회(2018). 초등생들의 성차별적 언행 지도법